

#1. 시골 산 마을 [오후/밖]

어느 옛날 18세기 경 조선시대

사람이 드문 마을 근처에서 사내를 몰래 기다리는 아름다운 처녀

하지만, 그녀의 신분은 천민

소명: 분명 이 근처였은텐데...

나오리의 그림자는 안보이는구려

영현: 소명 아씨! 영현도령 왔소이다

마침 누군가가 급히 달려오며 약간 큰 소리를 내며 손을 흔들듯 달려오는 남자

하지만 그녀는 조심히 손을 흔들며 조용해 달라는 제스처를 날린다.

소명: 영현 도령, 사람들이 들으면 어찌실려고 그리 큰 소리를 내었습니까

영현: 이거 미안하게 되었구려...

사과의 의미로 오늘 저녁에 단 둘이 산책하는 것은 어떻소?

소명: 허나, 저와 도령께서는 신분의 차이로 인해 비밀로 만나야될텐데 괜찮겠습니까?

영현: 괜찮다. 본의 아니게 나는 소명 남자와 있어도 행복하거늘...

그렇다, 그 둘의 만남은 아직까지 사회적 신분제도 영향으로 인해 금지된 사랑이었다.

그 순간 멀리서 영현 도령과 소명 남자를 보고 질투를 느낀 또 다른 처녀

덕춘: 감히, 내 허력도 없이 영현 도령을 만나다니...

내 오늘 기필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겠다.

#2. 임금의 궁전[저녁/안]

조용히 앞에 있는 신하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 쉬는 영현에 아버지이자 임금

임금: 흠..

신하: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?

임금: 무언가가 어찌 이리 답답한지 오늘은 기운이 안 나오는구려..

신하: 전하, 걱정하지 마시지 말입니까

나라 일은 걱정마시고 편히 안정을 취하시길 바랍니다

그때, 덕춘이 궁전 안으로 들어가며 충격적인 말을 전해 모두가 충격에 빠지며

임금은 충격을 먹었는지 옥좌에서 일어나 덕춘에게 다가간다.

임금: 방금 말한것이 다 사실이느냐?

어서 사실대로 말하여라

덕춘: 전하, 제가 그런 광경을 보았는데 어찌 기필코 헛된 거짓을 남발하지 않겠사옵니까?

그럼, 저 덕춘은 이 자리에서 물러 나오겠습니다.

사실대로 임금과 신하들에게 일러 받치며 조용히 궁전에서 나가는 덕춘

임금: 내 아들이.. 감히, 그런 천한 신분에 기집을 만나다니...

신하: 전하!! 정신 잃으시면 안됩니다

전하!!

#3. 인적이 드문 뒷산[밤/밖]

산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지나친다.

덕춘: 감히 내 사랑을 빼앗으려다니..

소명 남자, 그러면 안되는 몰랐나이까

인적이 드문 곳으로 와 살며시 웃으며 도령과 소명 연애 관계를 끝내려는 덕춘
하지만, 그 뒷담을 우연히 들은 소명
소명: 이 사실을 빨리 영현 도령에게 보고해야 되!!
마음을 굳게 먹으며 영현에게 달려가는 소명
아무것도 모른 채 소명에게 결혼 약속을 하려는 영현
영현: 오늘 난 소명 남자를 과거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 양반으로 만들겠소

#4. 늦은 시간대 호숫가[밤/밖]

호숫가 근처에서 소명을 기다리며 꽃 한송이를 들고있는 영현
영현: 이 꽃 한송이에 마음을 담아 전해주면 되겠구려
웃음기가 가득한 채 신난 얼굴로 저 멀리서 달려오는 소명
영현: 소명 남자, 그 소식 들었소?
추후에 과거시험이 있는데 그 비결을 가르쳐 주겠소이다
소명: 예?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영현 도령에게 마음을 품은 덕춘 아씨를 조심해야 하옵니다
숨을 헐떡이며 영현 도령에게 오늘 일어난 사건을 알려준다
영현: 음? 무슨 일이오? 소명 남자
소명: 오늘 저희가 오후에 마을 근처에서 산책하던 것을 들켰사옵니다.
영현: 그게 무슨 말이오? 들키다니...
누구에게 말이오?
소명: 그게.. 덕춘 아씨에게 들켰지 말입니다...
영현: 뭣이? 그래도 괜찮을 것이여
덕춘은 내 오랜 친구일세
소명: 하지만... 제가 오는 길에 들은 바지만 그녀가 임금에게 일러 받친 것 같사옵니다.
그때, 멀리서 말 소리가 들리더니 여럿 군인들과 임금이 말에서 내리며
뒤에서 천천히 앞을 향해 걸어오는 덕춘
임금: 내 아들 영현아, 너가 어찌 저리 천한 기집을 만날 수 있느냐말이다.
영현: 아버지 이런 말씀 드리기 힘드오나
전 어릴적부터 늘 고된 환경에서 자라 사는 것이 힘들었으나
이 남자가 제게 먼저 다가오며 격려를 하여 사귀게 된 것입니다
덕춘: 과연, 저 둘에 사랑이 사회가 받아줄 것이라 생각하였느냐?
소명: 덕춘 아씨, 어찌 저희에 사랑을 막은 것인지...
소명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턱을 살며시 올리며 뺨을 친다.
소명: 웃!!
덕춘: 소명 남자, 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도 가만히 볼것인가?
소명: 예?!
덕춘: 넌 너 자신에 사랑을 가졌으나 내 사랑을 빼앗으니 일렀으며 다른 이유는 신분이 다른
너희가 만일 결혼하여도 그 책임을 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느냐?
영현: 네이놈!! 덕춘, 난 널 어릴적 친구로 생각하였는데..
넌 감히 아버지께 일러 받치다니 용서치 않겠다
참다 못한 영현은 덕춘에게 큰 소리를 내었으나 코 웃음을 지은 채 자리에서 떠나며
신하들은 그들을 향해 칼을 뽑고 선 경계를 하듯 돌고 있다.

임금: 영현아, 너 오늘부로 내 자식이 아니다
그러니 내일 오전 사형을 내리겠노라
영현: 아버지!! 부디 한번에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
소명: 영현 도령!!
군인들에게 체포당한 채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영현과 소명

#5. 죄인이 많은 사형장[새벽/안]

군인들에게 끌려 온 채 사형장 안으로 들어간 영현과 소명
군인: 영현 도령님, 법을 위반한 죄의 댓가로 사형을 내리겠습니다.
소명: 제발,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면 안되겠습니까?
군인: 미안하지만 이건 명령이며 너희를 도울 시 나도 간접인이 된다.
엄한 표정으로 죄인들을 바라보며 자리를 떠나는 군인
소명: 영현 도령, 저희 어쩍니까?!
영현: 소명 낭자, 저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죽겠습니까?
단지, 시대를 잘못 만난 것이 죄라고 생각하나 소명 낭자로 인해 행복했사옵니다.
소명: 저도 동감합니다. 영현 도령
조용히 그 관경을 지켜보다가 말을 건네듯 다가온다.
죄인: 자네들은 무엇으로 인해 이곳으로 오게 되었나?
영현: 그저 몰래 사귀다가 걸려서 내일 사형 당하는 것이오
그렇다면 자네는 어찌하여 이런 곳에 있는가?
죄인: 난 그저 부장집 아씨에 물건을 훔치다 이리 잡혀 온 것이오
보아하니 둘이 신분이 다르지만 부럽구려
죄인과 처음 만났지만 이 생애 마지막으로 즐거운 대화를 하며 다음날 아침이 밝아온다.

#6. 임금의 궁전[오전/밖]

영현과 소명은 사형수에게 궁전 앞 마당으로 끌려오자 사람들이 복적이다.
임금: 영현과 소명은 잘 들어라
너희는 지금 신분이 어긋난 행위로 인하여 오늘 사형을 내리겠노라
영현: 아버지...
영현에게 다가가서 칼을 뽑으며 목에 갖다대는 사형수
소명: 영현 도령, 짧은 만남이었지만 덕분에 즐거웠다고 생각합니다.
만일, 다음생이 있다면 부디 가족으로 만납시다
영현: 나도 소명 낭자로 인해 재밌었소
헌날 다음생에 내 가족이 되어주길 바라네
임금은 사형수에게 눈길을 주자 칼을 힘껏 휘두르자 죽은 영현과 소명
임금: 내 아들 영현아 어찌 이리 아비 가슴에 목을 박고 죽느냐
어디서부터 널 잘못 키운건지...
덕춘: 다음생? 웃기는 소리구려
그런 것이 어딴다고 호들갑을 하는 것인지...
사형이 끝나자 사람들이 떠나고 재 갈길가며 웃는 덕춘

#7. 현대식 경기도 주택가

환생하자 무당 일을 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도령과 희정

원도령: 야, 아침이야

원희정: 이미 일어났어

원도령: 넌 무슨 잠이 그렇게도 많냐?

원희정: 내가 잠이 많으니까 이해해줘~

여동생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 쉬는 도령과

말수가 적어진 오빠를 지긋이 바라보며 외출하는 남매